

아세안의 그린 인프라 투자 동향: 필리핀 사례를 중심으로

한동만

아세안 국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전기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린 인프라에 많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에서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인 수쿠크 녹색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한편, 세계에서 9번째로 자연재해에 취약한 필리핀은 그린 인프라 투자에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 최대 바이오매스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인 지열발전소를 위해 그린 채권발행을 확대하고 있다. 결국 그린 인프라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녹색 채권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매우 중요한데 필리핀을 포함한 아세안 주요국가의 친환경정책과 녹색 채권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동만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이며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연구센터 고문이다. 연세대학교와 프랑스 팡테옹 소르본느(파리1) 대학원에서 공부하였다. 1985년 외교부에 입부한 이래 알제리, 영국, 호주, 미국(뉴욕, 워싱턴)에서 근무하였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행정관, 안보정책과장, 통상홍보기획관, 국제경제국장으로 근무한 후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를 역임하였다.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마치고 2018년부터 2020년말까지 (주)필리핀 대사로 일하였다. 현재 연세대 미래캠퍼스 초빙교수와 성신여대 법학부 겸임교수로도 근무 중이다. 저서로는 “한국의 10년후를 말한다: 글로벌 메가트렌드 변화와 우리의 미래전략”(2011), “실리콘밸리의 혁신,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다”(2015), “대한민국의 신 미래전략, 아세안이 답이다”(2019)등이 있다.

일시: 2021년 11월 25일 (목), 12:00-13: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210호)